



미래 포장산업 일익 담당

최우석 / 경북과학대학 포장과 1학년

“한 용교포장인상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포장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으로 수상된 경북과학대학 포장과 1학년 최우석 학생은 처음 인기학과에 편중돼 있는 대학 현실을 탈피, 특성학과에 대한 관심으로 처음 포장학과를 접하게 됐다.

최우석 학생은 “산업전반에 포함되어 있는 포장분야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포장과에 입학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아직까지 국내에선 포장산업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개발할 것이 많고 발전 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포장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석 학생은 방학동안 신기술포장연구센터인 학교 연구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실습을 했다.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연구센터의 실험기자재를 몸소 작동해본 그는 포장이라는



분야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한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학우들도 이론공부 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포장이라는 학문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에 있는 5개 포장학과 관련 학생들과 포장연구에 대한 세미나, 캠프, 해외 박람회 참여의 기회가 많아져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넓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포장산업을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필요한것 같다”고 덧붙였다.

포장에도 과학이 있다는 최우석 학생은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포장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통해 미래 포장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장 관련학 교수가 꿈인 최우석 학생은 학생들에게 포장산업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잠재력 있는 산업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소망이다.

미래 포장산업의 인재로 성장할 최우석 학생. 그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